

일주문



관음종 2009 전국 순회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2월 10일까지 용승사와 법은사 등 11개 사찰에서 2009년 전국 순회법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서 법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12월 2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0108



외국인 이주여성 위한 한글교육
수일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매주 일요일 용주사 경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무료한글 강좌 및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031)239-9391



유시민 前 장관 초청 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11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유시민 前 복지부 장관 초청 포럼을 진행한다. (02)725-4277



논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추대
논산 관촉사 주지 해광 스님은 논산불교사암연합회가 11월 1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정법사 대웅전 낙성법요식
춘천 정법사 주지 일본 스님은 11월 23일 오전 10시 6분에 걸쳐 건립한 대웅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한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송석구 가천의과대학 총장(전 동국대 총장)은 11월 16일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동국대 MBC 플레이비 산학협약
동국대 산학협력단 이종태 단장은 11월 18일 MBC 플레이비대표이사 최성금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연대 2009총회 개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대표는 11월 1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재가연대 2009총회를 개최한다. (02)2278-3417



불지기술회 창립 19주년 기념공연
대한불자기술회 영국회 회장은 12월 1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공연과 제8회 기요제를 실시한다. (02)713-2905

“이웃의 희망·자유 위해 희생”

제15회 불교인권상에 박원순·최상재 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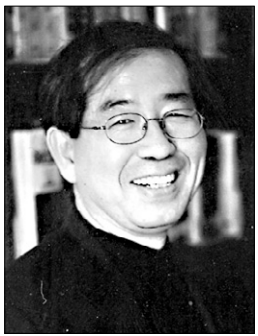
“이 상을 ‘채찍질’로 삼아보다 더 인간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11월 20일 박원순 회맹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상재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15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 통공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진관 스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에게 희망과 자유를 안겨주

기 위해 앞장 선 두 분이 있어 우리사회가 희망적이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불교인권상을 수상한 박원순 회맹제작소 상임이사는 인권변호사를 거쳐 ‘참여연대’ 창립과 ‘아름다운가게’, ‘희망과 대안’ 설립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대표 인물이다. 또 ‘보은사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불교계 비전 제시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SBS노조위원장과 PD협회 회장, 제5대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법” 상정 당시 조계사 1만 배 참배 등을 진행했으며, 불교언론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등 언론자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민간사찰 혐의 폭로 이후 진행된 소송상환을 들어 “국정원 소송이

후 많은 분들이 ‘혼자가 아니니 힘내라’고 격려해주시고, 택시비를 받지 않는 기사님도 있었다. 저에게 죄질과 실패로 ‘하심’하게 해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어 “이번 수상을 ‘채찍질’로 삼아 우리의 사회가 희망을 쉼표우도 록 더욱 역주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 단언히 나섰을 뿐”이라며 “민인의 목소리를 고르게 전하는 언론을 만들고, 지기 위해 ‘인권의 사랑’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상은 한 해동안 △민주화 및 인권진기 기여 △국가기관·기업 운영 투명화 △기부문화 확산 △언론 자유 보호 등에 공로를 세운 사회, 불교계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되는 불교계 최고 인권상이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함께 하는 공생공존이 미래의 뜻

13일, 여래종 재단법인 설립기념식 봉행

(제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1월 13일 충북 옥천군 옥천명가연회장에서 재단법인 설립 기념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국·스리랑카 조인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세계불교도총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명안 스님, 종정협의 회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협의 회장 해리랑카 아사타 페레 대사,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도임원 등 8백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불교도총연맹·세계불교법왕청 건립은 세계승왕 인왕 스님과 스리랑카



13일 봉행된 한국불교여래종 재단법인 설립 기념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국·스리랑카 조인식 참석 인사들.

정부 주도해 20여 개 국이 동참, 설립된 다.

조인식에 이어 여래종 재단법인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과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031)734-3205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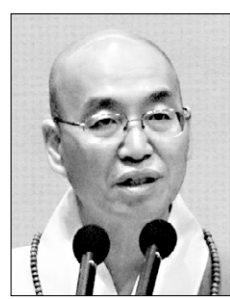
“통일위한 노력 본격화해야..”

평화재단 5주년 기념식 심포지엄 열려

11월 17일 열린 평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재단 설립 목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화해·상생 통일론’을 제시했다.

법륜 스님은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희망’으로 여기

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감이 결국 통일 이후 한민족의 이익까지 창출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

또 스님은 “골드만삭스 등 해외금융계와 국제사회는 남북 통일로 한국의 국가역량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통일외교 강력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평화재단이 발표한 ‘화해·상생 통일론’은 △이질적인 남북체제의 괴리감 해소 △남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고취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고양 등을 통해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님은 “골드만삭스 등 해외금융계와 국제사회는 남북 통일로 한국의 국가역량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통일외교 강력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좋은벗·좋은인연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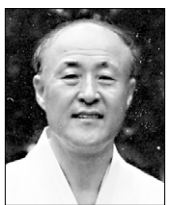
김재웅법사 천만원 기탁

“좋은벗들과 좋은인연만들기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가 11월 4일 정교회 ‘좋은벗들’과 불교신행연구원 ‘좋은인연만들기 모임’에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 법사가 이끄는 금강경속총회의 천도법회 등을 통해 모금된 것이다.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서민경제 위축으로 각 단체들마다 후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강경속총회가 1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준 것은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경속총회 관계자는 “본회는 개인 수행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이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웅 법사.

박선주 기자

美 교수, 東大에 백만 달러 기부

시바나탄 교수, 나노-정보기술 연구 발전 위해

동국대가 미국의 한 교수로부터 발전기금 105만 달러를 기부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시바나탄 교수(Sivalingam Sivanathan, 벤처기업 EPIR 대표)는 11월 16일 동국대를 방문해 기부약정서에 서명했다. 시바나탄 교수의 105만 달러 기부는 동국대 양자기술반도체연구센터 강태원 소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시바나탄 교수는 스리랑카 출신의 미국인으로 일리노이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5년 전부터 EPIR이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해 적외선 영상센서와 태양전지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해 왔다.

강태원 소장은 오랜 친구사이로, 지난해에는 강 소장의 연구를 위해 90만 달러의 연구과제를 기업체로부터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때문에 시바나탄 교수는 “동국대 양자기술반도체연구센터의 발전을 위해 쓰여 지길 바라며, 그동안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해 온 이 연구센터의 ‘나노-정보기술 연구



16일 기부약정식을 가진 시바나탄 교수와 동국대 오영교 총장.

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만 밝혔을 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다. 시바나탄 교수의 기부와 동시에 강태원 소장도 매월 급여 중 150만 원씩을 1년 동안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양자기술반도체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연구센터(SRC)로 1999년부터 9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2008년부터 SRC 후속사업인 도약과제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수행하며 500여 편의 SCI 논문발표, 3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다.

조종섭 기자

공불련 임원단, 총무원 예방

1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서 축하·다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북동 회장(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1월 1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하북동 회장은 “2010년 공불련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형 프로그램 개설, 조직 정비, 사회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공무원 불자 회원 1만 여명이 바쁜 국정 업무 중에도 활발한 신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진해 공불련 사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공불련 하북동 회장.

총장(감사원), 고기복 청불회 간사, 김태진 국가정보원 불자회장(단장), 류영창 국토해양부 불자회장(한강홍수통제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뭇물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너미언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가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너미언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너미언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정신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싶으신 분,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러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 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체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러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